



월출산 아래 태평양다원이 운영하는 장대한 규모의 차밭 강진다원. 33만3000㎡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로 시야 가득 펼쳐진 부드러운 곡선의 너른 차밭과 월출산의 바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강진 | 김재범 기자

청정자연 품은 강진...일주일만 지내볼까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자. 그곳 모란이 활짝 핀 곳에 영랑이 숨쉬고 있네.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자. 그곳 백제의 향기 서린 곳 영랑이 살았던 강진.”

1979년 MBC 대학가요제 은상곡 ‘영랑과 강진’의 노랫말이다. 40년이 훌쩍 넘은 옛 노래에 나오던 그곳, 강진을 최근 찾았다. 노래 속 모란이 만개한 때는 지났지만 땀하게 맑고 푸른 하늘이 이어지는 요즘, 강진에는 노래에 담겨 있던 애잔하면서 정겨운 감흥이 넘치고 있었다.

●산자락 아담한 절집, 가슴 탁 트이는 다원

접근성만 따지면 강진은 편한 여행지가 아니다. KT X를 타도 광주송정이나 나주서 내려 다시 차로 제법 가야 한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사실 강진의 오밀조밀한 매력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 그런데 바뀐 생각하면 요즘 인기인 ‘~일 살기’식의 체류형 투어나 여유를 중시하는 ‘슬로투어’ 같은 여행에는 강진만한 곳이 드물다.

강진에는 꽤 많은 절들이 있다. 신라 말 창건한 백련사, 동양 최대 황동아미타여래좌상이 있는 남미륵사, 고려 초 선종 사찰로 유명했던 무위사, 보물 제1843호 석가여래삼불좌상이 있는 정수사 등 저마다 오랜 역사와 귀한 문화재를 자랑한다

하지만 초여름 강진여행의 여유와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군동면 화방사를 추천한다. 402m 화방산 중턱에 자리한 화방사는 해남 대흥사의 말사다. 일단 앞에서 소개한 절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집 규모가 작다. 워낙 아담해 5분이면 다 돌아본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담백한 산사의 매력이 넘친다. 고즈넉하면서 한가로운 산사의 계단에 앉아 눈 아래로 펼쳐진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진다. 화방사에서 북서쪽 월출산 방향으로 가면 마치 녹색 바다가 열린 것 같은 장관이 등장한다. 태평양다원에서 운영하는 차밭 ‘강진다원’이다. 33만3000㎡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를 자랑한다. 시야 가득 펼쳐진 너른 차밭과 그 너머로 보이는 월출산의 바위가 절경을 연

요즘 떠오르는 체류형·슬로 투어에 제격 ‘화방사’ 아래로 펼쳐진 들녘, 절로 힐링 호남 3대 정원 ‘백운동원림’서 인생사진 가우도로 가는 ‘함께海 길’ 트레킹 명소 바다 위 길트랙부터 먹부림 즐거움 만끽



출한다.

인근 백운동원림은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힌다. 정약용, 초의선사, 이시헌 등이 교류하던 곳으로 유명한데, 호남 전통 별서정원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 오밀조밀하게 구성된 공간을 거니는 재미가 남다르다. 하늘로 우뚝 솟은 울창한 대밭 오솔길은 인증샷 명소다.

●지역민이 연가하는 영랑의 로맨스

가우도는 강진의 8개 섬 중에 유일한 유인도다. 대구면과 도암면 사이 바다에 있어 다리로 양쪽이 연결됐다. 해변을 따라 생태탐방로 ‘함께해(海) 길’이 조성되어 가벼운 트레킹에 좋다. 요즘은 섬 정상부 청자전 망탑에서 대구면까지 이어진 길트랙이 액티비티로 인기다. 다른 곳에 비해 높이나 길이가 압도적이지 않지만 바다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박진감이 상쾌하다.

군의 중심 강진읍에는 한옥체험시설 사의재가 있다. 정약용이 유배왔을 때 처음 머물던 곳을 한옥숙박과 문화체험 가능한 곳으로 가꾸었다. 사의재에서는 주말마다 지역민들이 직접 출연해 꾸미는 공연이 열린다. 이번 여행길에는 강진을 대표하는 시인 김영랑, 무용가 최승희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무대와 초의선사의 이야기를 남도 소리에 담은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남도여행의 재미에 식도락을 빼놓을 수 없다. 하멜기념관이 있는 병영면에는 연탄불에 구워 불향이 듬뿍 배인 돼지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아예 동네가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로 특화되어 있다. 월출산 초입의 성전면 경포대산장에는 토종닭 코스 요리가 있다. 닭갈비, 백숙 등과 더불어 닭육회를 내놓는다. 신선한 토종닭의 가슴살과 근위(모래집)를 회처럼 생으로 내놓는데, 날고기라는 선입관과 달리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강진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402m 화방산 중턱에 자리한 아담한 산사 화방사. 작은 규모의 절집이지만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산사 정취가 매력적인 곳이다(위). 요즘 가우도의 명물이 된 액티비티 길트랙. 섬 정상 청자전망대에서 바다 위를 가로질러 내려온다. 강진 | 김재범 기자



하이킹화 ‘퀀텀 니로 하이크’.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가 기아의 ‘디 올 뉴 기아 니로’와 협업한 로우컷 하이킹화 ‘퀀텀 니로 하이크’를 한정판 매한다.

장시간 보행에 강한 퀀텀 시리즈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 올 뉴 기아 니로’의 뛰어난 연비(20.8 km/l)라는 공통점에서 착안해 탄생한 특별 에디션 하이킹화다. 지난해 출시해 ‘연비 신발’로 입소문을 끌었던 ‘투어링워크’의 후속 업그레이드 모델 ‘퀀텀 에너지 하이크’를 활용한 스포셜 제품이다.

강한 탄성력을 제공하는 카본 웨이브 기술과 쿠셔닝이 뛰어난 하이퍼폼 미드솔이 적용돼 장시간 보행에도 편안하다. 전국 아이더 직영점과 온라인몰에서 100명에 게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하이원리조트 ‘하이원 샤스타 페스티벌’

하이원리조트는 11일부터 27일까지 ‘하이원 샤스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우선 골프카트를 이용객이 운전해 왕복 7km의 야생화 군락지를 감상하는 ‘하늘길 카트투어’를 29대로 확대 운영한다. 스키 슬로프 제우스와 헤라의 리프트를 특별 개방하는 ‘샤스타테이지 리프트 투어’는 주말에 운영한다. 마운틴 광장에서 출발해 샤스타테이지 군락지와 슬로워가든까지 도보로 감상하는 코스도 있다. 26일까지 판매하는 ‘2022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를 구매하면 객실, 샤스타테이지 리프트 투어, 전망 카페 음료 이용권, 카트투어와 워터월드 등을 할인가격에 제공한다. 11일과 18일 밸리하브에서는 정선 라온플룻 앙상블, 하이원리조트 직원공연단 ‘하이원 하모니’가 출연하는 버스킹을 진행한다. 4일, 5일, 11일, 25일 오후 9시부터는 ‘하이원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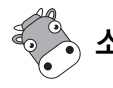
롯데월드, 와디즈와 캐릭터 IP 펀딩 기획전

롯데월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손잡고 ‘로티의 온앤오프’를 진행한다. 국내 테마파크 업계 최초로 와디즈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캐릭터 IP 펀딩 기획전이다. 롯데월드 캐릭터 로티가 일을 마치고 퇴근해 즐기는 삶을 주제로 15종의 굿즈들로 구성했다. 기획전은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6일까지 사전오픈에 이어 7일부터 본 펀딩이 진행된다. 펀딩 제품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9일까지 성동구 ‘공간 와디즈’ 1층에 쇼룸을 운영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3일(금) 음력: 5월 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뭇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끝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의외의 횡재수가 있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이므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전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이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심사숙고해서 경계방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시들었던 화조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벽한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고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